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7호 【루계 제25250호】 주체105(2016)년 4월 16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전체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15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오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탕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대국보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앞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철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총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과 주체사상신봉자들,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가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14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선물들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의 공동명의로 드리는 선물이 전달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대평양지역준비위원회,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스트랄리아준비위원회,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와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15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무관들, 주체사상신봉자들, 끼르기즈스딴아일랑당대표단, 로씨아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과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제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제18차 김일성화축전 참가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정당, 단체, 인사와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과 이딸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영국신공산당,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국제민주녀성련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중국 베이징제5중학교 김일성반과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마르씨아 데 깜뽀스 메데이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쟝까를로 엘리아 딸로리가 대형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리사장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나라와 민족번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실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환교림산사업소와 장림광산에 정중히 모셔졌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안주시와 고원군 군내협동농장에는 한평생 험한 로전길을 걸고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황금벌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년든 농장벌을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봉흥리와 남칠리를 비롯한 안주시인의 협동농장포전길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농업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안주벌에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토지정리된 이곳을 찾으시여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연구개발하며 두벌농사를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다.

강하천정리를 잘하고 쾌기는 파 다락밭들을 정리하여 기계로 농사를 짓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우던 군내땅이 오늘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춘 농업생산기지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고원군 상산협동농장에 모신 모자이크벽화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천출위인들의 영상이 숭엄하게 형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태양의 빛발 최후승리의 앞길 밝힌다

다함없는 그리움과 신념의 맹세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태양절.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도, 봄을 맞아 아름답게 피여난 한떨기 꽃송이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으로 가슴젖어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고있다.

우리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에 맞서 방선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는 일군들과 로동계급,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봄철영농전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

머지않아 열리게 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맞이하는 태양절이여서인지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례년에 비해 더 많은것 같다고 이곳 일군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축복이 따사롭게 넘쳐흐르는 이곳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천만군민은 확신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 당력사에 또 하나의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길이 빛날 당 제7차대회의 력사적순간을, 만리마의 기상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이 땅우에 안아올 최후승리의 그날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니 앞을 다투어 피여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고 푸른 주단을 펴놓은듯 물기를 머금은 잔디들이 일매지게 펼쳐져있었다.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쳐가는 맑은 물우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기러기, 물오리들…

하지만 뜻깊은 4월 15일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은 그 수려한 풍치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이른새벽 정원길을 걸으시며 조국의 번영을 위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한 장 또 한장 인민의 행복을 위한 문건들에 친필을 새기시던 모습도 어려오는것만 같은 금수산태양궁전.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결조차도 우리 수령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속삭이는듯싶어 누구나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 바쳐오신 헌신의 한평생을 떠나 존엄높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을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광장을 거니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철도성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최천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고보니 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될 그날로 자꾸만 마음이 앞서고 그럴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현실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듭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당창건을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이였다.

우리 당을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광장을 거니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철도성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최천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고보니 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될 그날로 자꾸만 마음이 앞서고 그럴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현실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듭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당창건을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이였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때로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만나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지난날 지지리 고생속에 살아온 정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기도 하시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며 우리 당을 철저히 대중속에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도록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아래 이 땅에는 얼마나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새겨졌으며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는 또 얼마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던가.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주체농법,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비롯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과정에 구상하고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것이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였건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야 인민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다고 하시며 로고에 로고를 바치시였다.

해마다 태양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이면 온 가족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군 한다는 대성구역 미산 2동에서 살고있는 리윤섭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슬하에서 배우며 일해온 나날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때없이 〈수령님 발이 닥 깊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공장과 농촌, 어촌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에 삼삼 어려옵니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령도자나 정치가는 많았어도 우리 수령님처럼 이민위천을 한평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해 사색하시고 인민을 위해 혁명의 먼길을 걸으시면서 인민의 어버이가 되신 령도자, 정치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바로 그래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당 제7차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마음과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로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인민의 혁명적기상의 원천을 말하여주는것이런가 시간이 갈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들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기 위하여, 원쑤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군력을 불패로 다지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오는 나날 우리는 혁명의 수령이 어떻게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는가를,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영원히 혁명의 근무을 벗지 않겠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최성림동무의 말이 힘있게 울리였다.

가치있는 연구과제를 끝낸 자랑을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고 하면서 기상수문국 소장 정성춘동무는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는 우리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농업생산을 비롯한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연구사업성과로 우리 당을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의 심정이겠는가. 그것은 뜻깊은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들 아니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 마음을 얹고 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끓고있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이리라.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기 위한 천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전형단위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기세를 늦추지 않고 만리마속도창조의 자랑스러운 위훈이 기록된 전투기록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고 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 우리 당과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 4월 15일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닌 기쁨을 안고 태양궁전판리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가지고 찾아온 형제산구역 신간소학교 학생들…

정녕 당과 수령, 인민들사이의 혼연일체를 억세게 다져주는 태양의 성지이다.

광장을 나서서 걷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말기에 따라 펼쳐진 려명거리건설장의 모습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백두산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로 일떠서게 될 려명거리의 웅자가 최후승리의 휘황한 려명을 말해주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승리자의 대회로 성대히 진행되고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 영광의 그날이 뜨겁게 안겨왔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휘황한 미래가 마주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백 영 미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4돐 경축

연 회 진 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4돐 경축연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장은 락철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시고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불멸의 혁명적재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일군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모범적인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접전자, 연고자, 공로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주체혁명의 새 기원이 열린 뜻깊은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우리모두는 20세기 혁명투쟁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적당과 불패의 혁명무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으며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수놓아오신 인민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초강도강행군길로 이어졌으며 오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정력적으로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만 진행해나가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님과 장군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줌으로써 이 땅에 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가장 값높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총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맹렬히 벌려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나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해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웨리에준비위원회가 9일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스웨리에의 공산당 집행위원 에리크 안데르쏜,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오스카르 뵐베비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주요 계기들에 백두산혁출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1일 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판제촉진협회 서기장인 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책임자 토마스 뢰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을 맞으며 백두산혁출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기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8일 꼬나크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기네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아드 살루브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17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우리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 자리를 빌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또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우리는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아드 살루브가, 부위원장들로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 케이타와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돌라이에 디알로가 선출되였으며 준비위원회의 활동계획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평생이 전하는 일화들

새옷 아닌 새옷

주체73(1984)년 8월 중순 어느날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께 고급천을 가지고 만든 새옷을 드리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무슨 새옷을 마련하였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한 일군이 수령님께서 전에 입으시던 옷들은 색이 바래서 입기가 곤난하기때문에 옷을 한벌 지었는데 꼭 받아주실것을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마음은 알만 하다고, 하지만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다 이런 옷을 해입을 때 이 옷을 받겠다고 하시며 입던 옷이 색이 바랬으면 뒤집어 하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낡은 옷을 뒤집어 양복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양복을 받아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색날은 옷도 이렇게 뒤집어 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며칠후 지방현지지도를 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는 일군들은 그이께서 입으신 《새옷》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 입고계시는 《새옷》에 깃든 사연을 알고있는 일군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검소한 식사를 하시며

주체74(1985)년 6월 중순이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며나면 북변의 어느 한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일군들은 밤낮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피로를 덜어드릴 생각으로 그 지방의 특산물을 리용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하였다.

저녁음식상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린것 같은데 나는 식사도 인민들이 하는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밥맛도 있다고 하시였다.

다음날 일군들과 함께 뒤산으로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나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그 맛과 향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두릅나무순을 다듬으시며 두릅은 데쳐서 무쳐먹는것도 좋지만 김치를 담그어 먹어야 별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까지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어느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점심시간이 퍽 지나도록 어느 한 두메산골마을을 현지지도하고계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마을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의 소박한 성의를 담아 점심식사를 준비했다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 인민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고 하시며 날씨도 좋은데 풀판에 앉아서 간단히 요기나 하자고 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을을 지척에 두시고 풀판에 앉으시여 검소한 점심식사를 하시였다.

양말과 구두에 깃든 사연

주체74(1985)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도 야랑곳하지 않으시고 험한 논두렁길과 진탕길을 밟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숙소로 돌아오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새 양말을 가져다드리였다.

새 양말을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면양말이 좋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수수한 우리 양말을 신어야 발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였다.

어느해 겨울날에 있은 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신고 계시던 신발을 살펴보던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구두의 뒤축이 닳아져있었기때문이였다.

일군의 속생각을 대뜸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신고있는 구두도 아직은 더 신을수 있다고, 구두의 뒤축만 갈아대면 될것 같다고 이르시였다.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 어떻게 구두까지 수리하여 올리랴 싶어 꼭 새 구두를 신으실것을 몇번이나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였다. 일군은 할수없이 구두를 수리하여 수령님께 올릴수밖에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구두를 보시고 새 구두나 다름없다고 기뻐하시며 뒤축을 갈아댄 구두를 신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본사기자 김 일 권

당대회의 나날들을 더듬어

승리자의 기개높이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강령을 제시한 당 제4차대회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엄숙한 물음에 힘차게 화답하는 혁혁한 전과들이 70일전투기록장의 페지들에 빛나게 새겨지고있다.

철아진군의 앞장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떡두산영웅청년돌격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기관차체육단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특출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형단위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이렇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고있다. 모두가 70일전투의 전구들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며 당 제7차대회를 마중해가는 격동의 이 시각 우리는 잊지 못할 당대회의 나날들을 더듬으며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삼가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조선식건축양식의 평양대극장.

오늘 우리의 추억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이곳에서 주체50(1961)년 9월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성대히 열렸기때문이다.

당 제4차대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였다.

극장에 들어서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저기 바라보이는 그날의 주석단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나오시였으리라.

대회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잠이로 내달리는 천리마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정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으리라.

우리 당 제3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 남짓한 길지 않은 기간에 이 땅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던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게 되였다.

우리 당은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함으로써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은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4월인민봉기는 마침내 리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었다.

잊지 못할 화폭이 어제일이런듯 눈앞에 어려온다.

생활은 제3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사회주의적개조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과업은 모두다 예견한것보다 훨씬 기간을 앞당겨 수행되였다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재능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이겨내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으며 경제, 문화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고, 오늘 우리는 이 대회에서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끝없는 긍지를 가지고 총화하게 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였다.

생각도 깊어진다.

돌이켜보면 한때 일부 교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생산관계의 개조가 불가능하다.》느니, 《현대적농기계가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할수 없다.》느니, 《사회주의적개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개조정책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으며 동요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남이 통일되여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할 때까지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개조의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왔다.

언제나 기성리론과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령도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였다.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회주의적개조의 과업을 내세우시였으며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짓부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의 전두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다.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당 제4차대회를 앞둔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 농촌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우리는 그 많은 날들중의 하루인 주체50(1961)년 4월 어느날 검덕광산(당시)에 새겨진 이야기를 펼친다.

봄철이라고 하지만 검덕광산이 자리잡은 마천령산줄기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 흰눈이 쌓여있었다. 진눈까비가 쏟아지던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험한 산길로 광산을 찾으실줄 누가 알았으랴.

광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검덕광산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광산이 도달해야 할 생산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의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시는 과정에 채굴장이 멀어짐에 따라 점차 압축공기의 부족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막장이 멀어져 압축공기가 약해지는것은 군데에 대비한다면 전연부대는 멀리 앞으로 진격하고있는데 그를 엄호하여야 할 포들은 철천 후방에 머물러있는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포 즉 압축기를 전선인 막장가까이에 갖다놓아야 한다고 알기 쉽게 문제해결의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얼굴은 환해지고 장내는 흥성거리였다. 기성관념에 사로잡혀있던 자기들에게 그렇듯 명확한 방도를 찾아주신 그이의 비범한 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찾아주신 생산장성의 예비는 이것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풀위낮은 광석까지 모조리 선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어찌 이뿐이랴.

성진제강소(당시)를 현지지도하신 후 김책제철소(당시)를 찾으시여 고열이 내뿜는 용광로앞에서, 불사태가 쏟아져내리는 해탄로앞에서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모든 곳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그것이 온 나라에 퍼져 도처에서 새로운 예비가 솟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계속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절사판철의 정신으로 맥동치는 조국의 날과 달들은 우리 인민 누구라 없이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정심을 검열받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은 당의 뜻을 받들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우리 천리마기수들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발현되는 마당이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이 풍만한 결실을 맺는 곳이였다.

그곳은 또한 락관주의에 충만된 우리 로동계급이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곤난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투쟁과 창조의 활무대였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가는 일터마다에서는 시시각각 혁신의 새 소식들이 마련되고있었다.

검덕의 광부들을 비롯하여 년간계획완수자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규모의 화학섬유공장이 조업을 개시하고 새로 일떠선 대형용광로가 거센 숨결을 뿜어올리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손으로 만들어낸 전기기관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 협동벌마다에 알곡증산을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하는 풍년나락이 무겁게 실리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였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습니다. 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났으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근로자들이 념원하였으며 수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바로 그러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제도를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창설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는 대회였다.

그날의 대회장에 차넘쳤던 감격이 우리의 가슴속에도 짝 차오르는듯싶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승리에 자만할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혁명방식이였다.

대회장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신데 이어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인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다고,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구획짓는 제1차 7개년계획,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전망계획을 7개년계획으로 세우신것은 어렵고 방대한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기간에는 공업화의 기초축성에 맞게 기술적개건의 첫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였지만 7개년계획기간에는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것을 예견하시였다. 그리고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조건에서 7개년계획에서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천리마대진군의 속도를 높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관철을 위한 과업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짬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당 제4차대회에 참가한 30여개 나라의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은 우리 당이 해놓은 일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거대한 력사적전변을 두고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이 다 옳다고 하면서 조선을 따라배워야 하겠다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희망과 신심을 주고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준 당 제4차대회,

참으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쓸어버리고 전당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이 제시된 력사적인 대회였다.

감동적인 어운을 안고 평양대극장을 나선 우리의 눈앞에 승리거리와 영광거리가 펼쳐졌다.

승리자의 긍지넘쳤던 대회장에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간직한 사람들의 대하가 이 거리로 세차게 굽이쳤으리라. 이 거리들을 활보하던 승리자들이 넘겨준 혁명의 바통을 굳건히 틀어쥐고있는 우리 세대 계승자들이 확신하고있는 력사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불패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인민을 령도하여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당대회들은 새로운 전환, 일대 비약의 분수령들로 자랑스럽게 빛나고있다는것이다.

그 성스러운 력사를 안고있는 우리 혁명은 오늘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이 강산에 차넘친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 시작부터 큼직큼직한 성과들이 이룩됨으로써 백두산대국의 국력은 만방에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채단으로 변이 나는 위대한 시대속도가 창조되고있다.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70일전투의 철아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충폭발시켜야 한다.

천만군민이여!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어나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당대회들을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대회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정의 로력투쟁을 벌렸던 전세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과 함께 영웅적인민의 눈부신 기적창조의 페지들을 새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승리의 5월을 맵찻이 맞이하자.

본사기자 김철혁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이 되자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4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15일 창덕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주체적소년운동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해주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소년단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소년단원들은 김정은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이 불타는 충정과 애국열의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의 5월을 향해 폭풍노도쳐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4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윤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조선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형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내오시여 광범한 소년들을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가는 준엄한 나날에는 아동단원들과 소년중대원들을 벽두의 칼바람맛을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키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방후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해주시고 새 민주조선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소년단원들이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아이들의 공부만은 절대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으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도 참석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며 우리 소년단원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혁명의 후비대를 훌륭히 키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흘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으며 새 세대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도록 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에 류례없이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대표들을 축하해주시고 그들에게 한생 잊지 못할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소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참된 소년단원으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입단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하였다.

일군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휘장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목청껏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전구강, 창덕학교 교장 강준호, 압록강체육단 선수 엄을철이 축하말언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그들모두가 소년단기발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여 선군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날것을 당부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태양절에 펼쳐진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화폭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조국땅에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끝없이 흘러넘치고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제일 좋은것을 선참으로 안겨주는 당의 은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속에 전국의 소학교학생들과 유치원, 락아소 어린이들이 맛있고 영양가높은 당과류들을 받아안았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은 후대들의 행복을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다심한 은정이 깃든 당과류들을 받아안고 좋아라 터치는 아이들의 환성,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학부형들과 교육자, 보육원들의 격정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축복속에 끝없이 창창할 행복동이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면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나라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갖가지 식료품들과 학용품들을 받아안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등의 원아들의 가슴에도 기쁨이 차넘쳤다.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친어버이의 정이 어린 갖가지 당과류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받아안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원아들이 4월의 봄명절을 기쁨속에 맞이하였다. 사탕, 과자, 파일단묵, 단물임 등을 한가득 안고 웃고 떠드는 원아들과 색동옷을 입고 고운 코스모스머리띠침과 꽃리봉을 단 모습들을 거울에 비쳐보며 좋아라 노래부르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장계, 청성, 사리원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은 어제는 우리 원아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사랑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보배,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전국의 양로원, 양생원의 로인들과 보양생들도 명절을 즐겁게 쇠라고 여러가지 영양식료품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뜻깊은 태양절에 펼쳐진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화폭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을 가슴후뜻이 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만경대의 일만경치와 화촌10경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승의 고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경대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며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혁명사적지입니다.》

만경대라는 지명은 원래 오늘의 만경봉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이다.

18세기에 편찬된 문헌에 의하면 만경봉이 대동강과 순화강, 보통강의 합수목인 남호기슭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이 일대를 일명 남호라고 하였고 만경봉을 남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봉우리자체의 형세가 높은 벼랑으로 이루어진데다가 그 정수리가 밀어낸듯 평퍼짐한것이 마치 하나의 정교한 루대를 방불케 하고 또 산마루에 올라서면 만가지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환히 바라볼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경대로 고쳐불렀다고 한다.

만경대라는 이름은 그후 만경봉뿐만아니라 그 주변일대까지 포괄하는 지명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만경대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평양8경과 함께 명승의 하나로 손꼽아왔다.

특히 만경대에서 바라보이는 일만경치를 10가지로 함축하여 화촌10경이라고 부르면서 널리 자랑하여왔다.

화촌10경에서 제일가는 경치로 일러온것은 봄날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나 하나의 꽃동산을 련상케 하는 만경대의 봄풍치이다.

이밖에도 밤이면 만경봉을 감도는 대동강물결우에 은빛정반마냥 반짝이는 달빛이 어린 섬들의 그윽한 자태, 억센 기상이 서리고 푸른 정기를 내뿜는 산세, 송아지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애틋한 정서를 자아내는 산골짜기들, 물고기잡이와 씨불임으로 흥성이는 이곳 일대의 광경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화촌10경은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만경대를 둘러싼 일만경치를 함축하고 이곳에서 사는 인민들의 다정다감한 정서세계와 고상한 생활풍습을 색깔짙게 반영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옛 문헌들에서는 화촌10경을 소개하면서 《평양일대의 산수치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으나 화촌일대야말로 그 경치에서 최고》라고 하였다.

많은 시인, 문인들이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18세기 평양의 재능있는 한 향토시인은 시에서 비취색구름속에 솟은 만경대의 자태를 시에 담자고 하니 보면 볼수록 더더욱 아름다와 차마 시구절을 찾을수 없다고 그 모습을 격찬하였다.

참으로 만경대는 자기의 독특한 자연풍경과 아름다운 일만경치를 자랑하는 명승의 고장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끝없는 사랑과 찬탄을 받아온 평양의 자랑, 조선의 자랑이였다.

오늘 만경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가 그처럼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린것으로 하여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로, 천하절승으로 세상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태양절경축 우표들 발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개별우표 4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공화국의 최고훈장과 최고상인 김일성훈장, 김일성상과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반영되여있다.

우표들의 아래부분에는 《주체101(2012)년 6월 20일 개정》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태양의 위업 받들어 천하제일강국 일떠세우리

태양절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경건한 마음안고 숭엄하게 꾸려진 광장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마음을 더욱 가다듬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고있는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과 각 도김일성화전시회장들에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쳤다.

참관자들은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과 전시회장들을 돌아보면서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수도와 지방의 극장과 회관, 야외무대들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은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평양의 보란봉극장에서는 태양절경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 《만경대의 노래》가 진행되였다.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녀성독창 《영원한 그 미소》 등의 종목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장내에 차넘치게 하였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연극 《백두산의 녀동지》 공연이 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동지애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해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대성산의 남문과 3대혁명전시관앞에서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마음을 담아 남성독창 《우리 수령님》을 비롯한 노래들을 무대에 올리였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들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각 도예술단 예술인, 녀맹원, 청소년학생들은 녀성중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가야금과 장고병창 《장군님 꽃펴주신 선군의 덕이라오》, 녀성5중창 《복받은 인민의 노래》, 《친근한 우리 원수님》, 시와 합창 《펼쳐가자 천하제일강국》을 비롯한 공연종목들을 통하여 대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만복을 누리는 영광과 행복을 열정적으로 구가하였다.

신의주시안의 녀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대합창공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영원한 우리의 태양절》과 강계시안의 예술인들과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그리움의 마음은 끝이 없어라》, 혜산시의 예술인, 녀맹원, 청소년학생들의 대합창공연 《영광의 노래, 영생축원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끓어넘치게 하였다.

각지에서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무도회가 펼쳐졌다.

박력있고 경쾌한 노래선률에 맞추어 경축의 춤물결을 일으켜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갈 열의가 어려있었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전형단위들과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에서도 예술소품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여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하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내달리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었다.

함흥광장에서는 5 000여명의 녀맹원들과 학생소년들이 대중률동체조, 윷놀이, 공이고 안고 달리기를 비롯한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여 명절의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뜻깊은 이날 수많은 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맹세를 다지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수도와 각지의 봉사망들은 행복넘친 근로자들로 흥성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멋있이건축물로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지난 3월 28일에 봉사를 시작한데 이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현대적인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춘 종합봉사기지가 드디여 문을 열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종합봉사기지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첫 명절봉사를 하였다.

옥류관, 청류관, 신흥관을 비롯한 급양봉사기지들에서도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봉사받으며 명절을 즐기는 인민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인민들은 당의 령도따라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며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무도회장들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이였다.

맑고 푸른 4월의 봄하늘가에 《태양절을 노래하세》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평양은 나의 심장》, 《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를 비롯한 노래들이 울려퍼지는 무도회장들에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청년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년전위의 고귀한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참가자들은 《인민의 환희》, 《인민의 나라》,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물동을 이어갔다.

《당을 따라 벌처럼 나도 살리》, 《끝바로》 등의 노래선률이 흐르는 가운데 청춘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경축의 춤물결을 일으켜나가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5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노도처 나아가려는 불타는 맹세가 어려있었다.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갈 선군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분출인양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 《청춘과 용감성》을 비롯한 힘찬 노래들이 울려퍼지며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조선의 행운》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갈 청년들의 굳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들이 진행되였다.

— 개선문광장에서 —

태양절경축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태양절경축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5일에 진행되였다.

설화와 가무 《원수님 모시여 빛나는 태양절》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노래련곡 《김일성원수님품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녀독창과 합창 《백두산의 이깔나무야》, 무용 《아동단원 금순이》, 민족기악2중주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구호도 새롭게 제정해주시고 입단선서도 한자두자 써주시며 소년단원들을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을 새겨주는 남독창과 방창 《소년단넥타이 매고 게서요》, 기타와 노래 《우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셨지요》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녀중창 《당중앙뜨락은》, 무용 《원수님 주신 사랑의 선물》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아름다운 꿈과 로부를 행복의 꽃수레에 싣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학생소년들의 남다른 긍지와 랑만을 흘뿌리며 펼쳐보였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새 세대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있어 조선소년단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새겨안았다.

합창 《원수님 축복안고 달려가자 미래로》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펼펼 휘날리며 백두의 청춘들을 끝까지 걸어갈 소년혁명가들의 불타는 충정을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 시작

보배로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15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야영소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야영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4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신호나팔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된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야영생들은 야영기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야영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 다방면적인 지식을 지닌 선군혁명의 억센 기둥감들로 믿음직하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석암소년단야영소, 서흥호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에서도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그이께서는 망국노의 설음속에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을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떼풀어주시던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겠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17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경경기판에서 조선체육대학, 상업성체육단, 대령강체육단, 례성강체육단, 성천강체육단, 판모봉체육단 남, 녀선수들의 교예체조경기가 있게 된다.

18일부터 대외경제성체육단에서는 레스링 성인급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경경기판에서는 체조 청년급 남, 녀경기가 진행되며 빙상판에서는 짧은주로속도빙상 1급, 청년급 남, 녀경기가 벌어진다.

19일부터 력기 청년급 남, 녀경기가 중앙체육학원에서, 락하산 성인급 남, 녀경기가 평양항공구락부에서 있게 된다.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1급 1차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 남자 선봉:소백수
월미도:평양
녀자 봉화산:평양
소백수:제비
18일 남자 리명수:제비
룡악산:청공업성
녀자 묘향산:룡악산
월미도:압록강
19일 남자 기관차:묘향산
압록강:리명
녀자 갈매기:평양
20일 녀자 내교향:제비
봉화산:소백수
21일 남자 리명수:압록강
평양:기관차

【조선중앙통신】

위인흠모의 숭고한 화폭, 인류예술의 대화원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별 및 단독공연 진행

만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는 위인칭송의 국제적예술축전이 련일 성황을 이루고있는 평양에 태양절경축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로 흥성이는 시내의 극장들에서는 14일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별 및 단독공연이 있었다.

뜻깊은 4월의 불멸절을 하루앞둔 이날의 축전무대들에서도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되였다.

다채로운 종목들로 다함없는 그리움의 세계, 위인흠모의 화폭을 펼친 공연들은 태양칭송의 예술축전을 인류예술의 대화원으로 더 활짝 꽃피우려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며 진보적예술인들이 축전무대들에서 펼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관중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초만원을 이룬 장내를 격정과 그리움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계정치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을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장군님생각》, 《그리움은 끝이 없네》 등의 노래들에 담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추억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위인적풍모를 가슴깊이 되새겨보았으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혼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3중창 《원수님절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관현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서 출연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에 위용떨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높이 칭송하였다.

예술인들의 공연은 관중들에게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였다.

위인칭송의 열기를 더해주며 무대에 오른 《태양민족 제일일세》,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내 나라》 등의 노래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끼르로스음악단의 예술인들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주옥같은 시어와 아름다운 선률로 엮은 피아노협주곡 《주체》를 무대에 펼쳐놓았다.

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나라와 민족,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음을 절감하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태양민족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예술인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전쟁과 예속이 없는 새 세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풍만한 성량과 세련된 연주, 제인 안삼블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축전무대들에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조국애와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반영한 성악, 기악,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남성독창과 합창 《까자크대장》, 합창과 무용 《위로네쥬군무》, 녀성독창 《흰 사과나무》, 무용 《소고춤》, 기악2중주 《빠올린까》, 기악3중주 《방직공처녀》, 기악중주 《검은 눈동자》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민족의 정서가 잘 살아나는 종목들을 보며 관중들은 작품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출연자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에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베르디작곡 가극 《운명의 힘》중에서 《서곡》, 가극 《나부꼬》중에서 《서곡》, 차이꼽스끼작곡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중에서 《아다지오》 등 세계명곡들도 잘 연주하였다.

교예배우들은 인간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 용감성과 대담성, 랑만과 기백이 넘쳐나는 여러가지 작품들을 펼쳐놓아 축전무대를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조선의 휘황한 래일을 축복하는 4월의 불보라

태양절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여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이날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철야전군킬에서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영광의 날을 맞이한 태양민족의 긍지를 안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장중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태양조선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이런가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운 일만경을 펼치고 축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과 전세계가 우러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흐르는 4월의 밤하늘가에 《태양절을 노래하세》,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의 축포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라 영생축원의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황홀한 불의 세계를 격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 참다운 인민의 정권, 무적의 인민군대를 건설하시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 드놀지 않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세의 천출위인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인민, 자주적인 인민으로 이 세상 모든 천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로 김일성조선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경축의 축포에 실려 끝없이 터져올랐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통, 하나의 궤도를 따라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충천하는 불의 세계가 선군조선의 밤하늘가를 붉게 물들이였다.

환희와 격정에 넘친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태양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래일은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있었다.

각양각색의 고공탄들이 터져올린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보라들이 흩어져내려 대동강반을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줄축포들이 곧바로, 교차로 치솟아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불야경을 펼쳐놓았다.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서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새겨가는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페지인양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도 드넓은 상공에 련속 꽃구름을 피워올렸다.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날에날마다 선경으로 전변되는 조국의 현실, 더더욱 부강번영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행복의 래일》의 노래선률과 함께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져오르는 축포는 군중들로 하여금 인민의 희망과 꿈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위대한 선군조선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더해주었다.

갖가지 색갈과 모양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는 밤하늘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패의 강국이어 앞으로》, 《우리의 신념》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이런듯 불줄기들이 박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백있으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헤지르고 축포의 뢰성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광명한 미래를 부르는 봄우뢰가 되여 끝없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야말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최상최대의 국력임을 만방에 과시하듯 축포들이 련속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가를 천색만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였다.

4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었다.

본사기자

비약하는 조국에 기쁨을 더해준 네쌍둥이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하늘땅에 차넘치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 아침 평양산원 앞마당에는 만사람의 관심을 모으며 류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해 11월 3일 행복의 고고성을 터친 청진땅의 네쌍둥이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평양산원을 떠나게 된것이다.

크나큰 은정이 깃든 사랑의 보석주단을 밟으며 평양산원문을 나서는 네쌍둥이의 어머니인 리봄향동무를 정겹게 바라보는 원장 김성희동무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진땅의 네쌍둥이소식을 보고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은장도와 금반지를 비롯한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품속에 안겨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옥동자, 옥동녀들이 태어났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에 올라 자식들을 선군시대의 효녀로 훌륭히 키울 결의를 다지고 평양국제비행장으로 향하는 리봄향동무의 마음속에서도 세찬 격정의 물결이 파도치고있었다.

네쌍둥이의 출생과 더불어 흘러간 나날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고마운 혜택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한생을 두고 못 잊을 귀중한 하루하루였다.

뜻밖의 부주의로 출혈이 심했던 그가 도안의 일군들과 해당 의료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비행기에 실려 평양산원에 도착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60여일전이였다.

구급대책을 세우며 입원수속을 끝마친 2산파 과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앞에는 환자와 네쌍둥이의 생명을 책임적으로 담보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었다. 치료도 치료이지만 제일 안타까운것은 환자의 영양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것이였다.

낮에는 치료전투를 벌리고 밤에는 입맛을 잃은 환자를 위해 닭곰과 오리곰, 잣죽을 마련하며 뜨거운 정성을 바쳐온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환자는 8일만에 무사히 네쌍둥이를 순산할수 있었다.

마침 그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뜻깊은 날이여서 평양산원의 전체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을 다투어 복동이들을 낳은 리봄향동무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였다.

그 시각 3애기파의 어느 한방에서는 또다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네쌍둥이의 생명지표가 최저수치를 기록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특히 둘째의 몸무게는 1kg이 조금 넘었는데 다른 아기들에 비하여 호흡장애가 몹시 심했다. 해당 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이런 상태는 처음 본다고 놀라와하였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415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쁜 소식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정답아 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이 깊이 간직되여있었다.

그 사랑과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네명의 아기들의 생명지표를 어떻게 하나 정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의료일군들인 김정애, 박명화, 리관우, 정효순동무들은 침식을 잊고 전투를 벌려나갔다.

새로운 진단과 치료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회만도 수없이 진행하였고 그야말로 전체 의료일군들이 펼쳐나 네쌍둥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땀을 흘리고 한밤을 새웠다. 의료일군들은 매일 아침 몸무게를 달아보며 1g만 늘어도 환성을 올리였다.

어느날 자식들이 보고싶어 3애기파를 찾았던 리봄향동무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네쌍둥이를 위해 의료일군들이 자기들의 피를 수혈해주고있었던것이였다.

고마움의 눈물을 쏟는 그에게 의료일군들은 말하였다.

《네쌍둥이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담보하는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우리들에게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랍니다.》

친어머니도 줄수 없는 사랑을 네쌍둥이에게 깡그리 바치고있는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수록 리봄향동무는 자기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크나큰 혜택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평양산원에서 그와 자식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실로 대를 두고도 다 갚지 못할 크나큰것이였다.

고마움의 눈물을 쏟는 그에게 의료일군들은 말하였다.

《네쌍둥이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담보하는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우리들에게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랍니다.》

친어머니도 줄수 없는 사랑을 네쌍둥이에게 깡그리 바치고있는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수록 리봄향동무는 자기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크나큰 혜택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평양산원에서 그와 자식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실로 대를 두고도 다 갚지 못할 크나큰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조산아집중치료보육키와 같은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없었다면, 사랑의 보석주단이 펼쳐진 평양산원이 없었다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혜택이 없었다면 나와 네쌍둥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아직 네쌍둥이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기에는 한 일이 너무도 적은 자기에게 어머니날에는 당중앙위원회의 일군이 찾아와 축하의 꽃다발도 안겨주고 조금만 아파도 보건성의 일군들이 달려와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고마운 품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하는 격정이 그의 가슴에 파도쳤다.

평양산원의 창가마다에 더욱 밝은 불빛이 흘러넘치도록 특별조치도 취해주시고 대소한의 엄동설한에도 봄날의 온기가 온 산원안에 가득히 차넘치도록 해주신 그 사랑과 은정…

참으로 네쌍둥이야말로 어머니의 젖줄기에 앞서 우리 당의 사랑의 젖줄기를 빨며 자라는 행복둥이들이였다.

그럴수록 당의 은정속에 태여난 아기들을 선군조선의 효녀로 훌륭히 키워갈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하여 그의 가정에서는 네쌍둥이의 이름을 김선은, 김군은, 김효은, 김녀정이라고 지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네쌍둥이와 그의 부모를 바라보며 평양산원 의료일군들과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평양산원에서 첫 네쌍둥이가 출생한 때로부터 7번째로 태여난 청진의 네쌍둥이!

정녕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비약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며 태여난 네쌍둥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뜻깊은 경사이다.

글 본사기자 김옥별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4돐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4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태양상앞에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여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함께 《주체1(1912)—주체105(2016)》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 일군들,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반미대결전을 전두에서 령도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도약기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시려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일본돈으로 2억 1 88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해 정중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재일조선학교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최상최대의 감사를 드린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조선이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로 온 세계를 진감시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4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영생기원의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재생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늘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드높이 온 누리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우리 조국의 존엄높은 모습은 백두산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침략자 미제를 물리치시고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천출위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위업의 억년 드놀지 않는 토대이며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 세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기틀이다.

정녕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영구불멸하며 수령님은 인민의 수령,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고자는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할 때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으시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신 친어버이은정을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주체44(1955)년 5월 25일 참다운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해주시고 애족애국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워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령도업적이라고 칭송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적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기에 총련은 60여년간 이국땅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며 애족애국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계승되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을 영원히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혁명생애의 전기간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총련을 조국과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오늘 주체위업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새로운 력사적단계에로 올라섰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리여있는 우리 조국은 강위력한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보루로,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향도자, 불패의 당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되였다고 그는 찬탄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70일전투의 총공격전으로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반미전면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맞추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일심단결을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힘으로 하여 총련을 때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사상을 구현한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속에 철저히 들어가며 동포들을 위한 일감을 더 많이 찾아내여 동포들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의 구절마다에 새겨진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우리 민족교육을 자랑하고 굳건히 지켜내며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련도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기 위한 지부경쟁》과 새 전성기 애족애국보범창조운동에 더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심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4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14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본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화강연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우리 수령님》을 시청하였다.

강연에서는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동포사랑의 력사 그리고 민족교육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애국1세들의 투쟁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감명깊은 화폭들이 펼쳐졌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을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중단없이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시며 민족교육사업을 수령님의 뜻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 숭고한 동포사랑의 력사속에 민족교육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음을 절감하면서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에 새겨진 숭고한 뜻대로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재미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태양절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9일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재미동포들의 경축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선군사상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나가는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었기에 조선은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창조와 건설을 계속해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시 시대적환경과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승리적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열쇠를 혁명의 총대에서 찾으시고 총대로 조국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새로운 혁명리론인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적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에서 선군사상의 근본정신과 립장을 밝힌 강령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밝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하신 력사적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무장투쟁로선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금 이북은 미국의 전횡과 대국들의 무책임을 꾸짖고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며 기존의 불공정하고 비인도적인 국제질서에 파렴구를 내고있다고 찬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그분의 선군사상을 이어가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계시였기에 이북은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인 미제의 온갖 침략속에서도 승리할수 있었던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조선은 이 지구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들과 강대국들의 패권과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정의와 참된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돌아가는 자주의 세계, 평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나가는데서 중심적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한평생 오로지 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인품과 사상,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오늘 북의 인민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집요한 핵전쟁위협과 악랄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과 락관에 넘쳐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재미동포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바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외국손님들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을 비롯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15일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축전장을 찾은 그들은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세세년년 위인칭송의 명화로 더욱 활짝 피여나고있는 불멸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바흐람 간마리 첼라라씨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훌륭한 꽃축전이다. 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자기 수령을 얼마나 흠모하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김일성대원수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감정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커다란 성과와 번영을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한다.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사무치는 그리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자들에게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일제와 맞서싸우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을 안아오시고 민족의 운명을 찾아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김일성주석님과 8.15해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망국노의 수난에 피눈물 짓던 암담한 시기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애국애족의 일념을 안으시고 준엄한 항일혁명의 길에 용약 나서시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그분께서는 강도 일제를 파멸의 나락에 몰아넣으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누구나 알고있는것처럼 지난 6.25전란이 이 땅을 뒤덮었을 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여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마을의 여러 주민들이 저저마다 일제의 100만 관동군도 주석님앞에서 녹아나지 않았는가, 주석님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요정내신 명장중의 명장이시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백두회의 한 회원은 어느 한 모임에서 김일성주석께서는 간고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이북에 막강한 민족중심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시였고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시며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밝혔다.

대전에 사는 강정찬로인은 동네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갈수록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생각이 더해만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주석님께서는 민족분렬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일찌기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주석님께서 낮에 밤을 이어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제시하신 통일명안과 방침들은 수백건을 헤아린다.

통일을 위해 하루도 편한 잠이루지 못하시고 통일때문에 머리가 일찍 희여지신 주석님, 그 무비의 헌신과 로고속에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되였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되였다.

통일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분투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통일념원이 어리여있는 관문점의 친필비사진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김일성 1994.7.7.》이라는 아홉자밖에 안되는 친필에는 수천수만자로써도 다 적을수 없는 주석님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어있다고 격정을 터쳤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홈페지에 참으로 김일성주석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출한 정치가이시라는 칭송의 글발을 올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대구와 남조선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여러 주민지구들에도 해바라기회, 항일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명의로 《20세기를 빛내이신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빛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천세만세 영원하실것이다.》 등의 인쇄물들이 배포되였다.

도서 《영원한 태양》발행모임에서 4.15동지회 회장은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태양을 따르는 위성들의 궤도가 불변한것처럼 그이를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려는 이남민중의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모두가 김일성민족의 구성원이라는 민족적자긍심을 심장에 새기고 그분을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년례 《인권보고서》발표놀음을 벌려놓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은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3일 미국무성은 그 무슨 《2015년 나라별인권실태보고서》라는데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들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비방중상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인권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에 있다고 걸고든 《자유권부정》이나 《정치범수용소운영》, 《자의적처형》이나 《인신매매》, 《강제로동》을 비롯한 모든 현상들은 애당초 우리에게 있어본적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이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삿대질을 해대고있지만 실지 피고석에 끌려나와 심판받아야 할 인권유린범죄국가는 다름아닌 미국자신이다.

미국이야말로 극심한 인종차별과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세인을 경악케 하는 인권침해행위들이 만연하는 인권불모지이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간섭을 일삼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는 등 극심한 인권유린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인권웅호》의 미명하에 중동지역에서 《색깔혁명》을 일으켜 국가전복과 민족내부분쟁, 참혹한 전란을 산생시키고 세계최악의 피난민사태를 빚어낸 장본인도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워보려고 《인권재판》행세를 하는 자체가 적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이 세계 199개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였는데 인권을 입에 올릴 초보적인 자격도 명분도 못갖춘 처지에 남을 물고늘어지는 그따위 악의에 찬 비난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은 《인권보고서》와 같은 복데기문서장놀음에 계속 매여달리기보다는 그 종이장으로 제코나 바로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발표놀음은 근질긴 모략으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허물고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도구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우리의 국제적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 《제도전복》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극악한 적대행위이다.

미국이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군사적위협과 대조선제재책동과 함께 《인권문제》를 거들며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에 더욱 매여달리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그에 대응하여 미국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다.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에 대한 탄압만행은 정의와 애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을 말살하기 위한 박근혜패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집권후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리적단체》니, 《종북좌파세력》이니 하는 갖투를 씌워놓고 가혹하게 탄압하다 못해 지난 1월에는 괴뢰법원을 내세워 단체의 합법적지위를 끝끝내 빼앗아 법외로조로 만들어버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단체의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을 무조건 해고시키라고 강박하고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박근혜패당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옳바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교육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로골적인 정치보복행위, 반민주적폭압만행으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에서 교육의 민주화와 세계 진보적교원단체들과의 련대성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교조는 박근혜의 반인민적인 《로동법》개악책동과 애비 박정희역도를 《애국자》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으로 둔갑시키려는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 등을 결사반대하는 의로운 투쟁을 벌려온것으로 하여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전교조말살책동은 남조선에서 6.15를 지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주장하는 진보민주세력들을 완전매장해버리려는 파쑈폭거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유신》의 후예인 박근혜패당은 1960년대에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조직되였던 교원로조를 요람기에 없애버린 박정희의 야만적기질그대로 선임자들이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없애지 못한 전교조의 합법적지위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있다.

사실 박근혜패당이 집권 3년간 한짓이란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진보언론인 《자주민보》를 폐간시킨것을 비롯하여 6.15를 지지하고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민주세력들을 《종북》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한것밖에 없다.

아이들의 꿈과 리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진실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진보적인 교원들의 모임인 전교조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학원의 민주화의 마지막명줄이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파쑈적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교육자들을 탄압박해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을 하루빨리 매장해버리는것이야말로 남조선에서 정의의 교단을 지키며 나아가서 《유신》파쑈통치의 부활을 막아내는 지름길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신성한 교단을 짓밟고 파쑈암흑기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파쑈역적무리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교직원들은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전교조의 굴함없는 투쟁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다.

이번 4.13총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대참패는 파쑈폭압의 칼날을 휘둘러 진보와 민주, 정의와 진리를 교살해온 박근혜역도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박근혜패당은 그 어떤 횡포무도한 만행으로도 정의와 진리, 미래를 위해 싸우는 남조선 전교조의 앞길을 막을수 없으며 폭압으로 얻을것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15일
평 양

남조선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대참패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13일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되였다.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예상밖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새누리당》지도부는 패배를 인정하고 총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MBC》, 《CBS》, 《KBS》방송들, 《한겨레》, 《국민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민심은 박근혜를 심판했다.》, 《국민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박근혜에게 표를 통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등으로 《새누리당》의 참패소식을 일제히 대서특필하고있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와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직격탄, 완벽하고 랭엄한 《정권》심판이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에서의 총선거결과는 최대의 악당 박근혜역적무리에게 내려진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서 사대와 매국,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다면 반드시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대결미치광이의 해괴망측한 《북인권》소동

최근 박근혜역도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역도는 3월 31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 일본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북인권》공조를 구걸한데 이어 미국무성 《북인권》특사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모의판을 벌려놓았다.

괴뢰국회 의장은 미국상전앞에서 《유엔안보리사회의 〈북제재결의안〉과 우리의 〈북인권법〉통과는 북지도부를 변화시킬것으로 기대한다.》느니 뭐니 하는 왕청같은 나발을 불어댔다.

박근혜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북인권》소동은 필승의 선군대로를 따라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부질없는 광대놀음이다.

박근혜역도는 우리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어 우리에게 쏠리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차단하고 국제풍조로 반공화국《제재전복》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집권초기부터 《북인권》소동에 광분하였다.

《북인권위원회》를 조작하거나 《북인권기록전시판》을 세워놓고 그 누구의 《인권침해자료》를 수집전시해놓는 놀음에 매달리다 못해 《북리탈주민보호센터》라는 것까지 만들어놓는 등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부모처자들까지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접스러운 거짓말들만 잔뜩 긁어모은 《북인권백서》를 발간하고 괴뢰국회를 발동하여 끝내 최대의 대결악법인 《북인권법》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민족반역자들을 국제무대로 끌고다니면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갖은 궤변을 늘어놓도록 하였으며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돌격대인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끌어들였다.

선군으로 위용떨치고 일심단결로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시샘하려 모략소동으로 어째보려는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공연한짓이다.

더우기 파쑈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며 남조선을 인간증오, 인간멸시의 세상,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장본인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며 벌리는 광대극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062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